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11. 13.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류재원, 주무관 김경현 • ☎ (044) 201-4141, 4140
	부산지방항공청	담 당 자	• 과장 이기찬, 주무관 조영한, 주무관 이진선 • ☎ (051) 974-2170, 2187
보 도 일 시		2020년 11월 1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5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울릉공항 실착공으로 2025년 울릉도 하늘길 연다

- 서울 ~ 울릉 간 7 시간 → 1 시간으로 단축 주민 교통서비스 향상, 도서지역 관광활성화 기여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“울릉공항 건설사업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.
-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,651억 원이 투입되며 1,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.
 - 그간,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, 2015년 기본계획 고시, 2017년 기본설계, 2019년 5월 포항~울릉 항공로 신설 및 총사업비 확정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으로 사업발주, 2019년 12월 대립산업컨소시엄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후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7월 계약을 체결했다.
 -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울릉공항은 계기정밀절차 운영 및 결항률 최소화로 안전한 공항, 민·관을 아우르는 다기능 복합 공항, 250년 빈도이상 파랑에도 굳건한 수호형 공항, 구조물 내구성

및 기초안정성이 강화된 견고한 공항,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항을 건설하게 된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2011년 「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」에 도서지역 소형 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해왔다.
-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하여 의료, 교육,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,
-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한편, 50인승 항공기 등 소형항공산업 활성화 유도에 일조할 것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“실질적인 사업착수가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”며,
- “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~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신공항기획과 류재원 사무관(☎ 044-201-41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위치도



□ 조감도

